

대학생성공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류 소 형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탁 진 국†

광운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대학 학생이 대학생활 과정에서 이루어 가야 할 대학생성공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첫째, 대학생성공 인식조사 연구 분석, 문헌 검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6요인의 145 문항이 완성되었다. 둘째, 예비문항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6요인의 48문항이 추출되었다. 셋째, 예비조사에서 추출된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 609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구분하고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여, 6요인의 26문항이 도출되었다. 최종 도출된 요인과 문항은 ‘삶의 목표 설정’ 5문항, ‘진로개발’ 4문항, ‘주도적 학업’ 5문항, ‘대인관계 증진’ 5문항, ‘성숙한 시민의식’ 3문항, ‘자기성장’ 4문항이다. Thriving Quotient(성장 지수)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성적, 학교적응, 진로 결정,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학생성공 척도와 TQ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준거관련타당도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본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학생성공 관련 척도와의 차이점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실무적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학생성공, 대학생 성공 척도, 대학생 성공 요인, 요인분석, 타당화

* 본 원고는 류소형(2022)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탁진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Tel: (02)940-5424, E-mail: tak@kw.ac.kr

Copyright ©2023,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차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에 따라 사회, 경제, 정치, 교육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이다. 앞으로의 교육은 단순 지식이 아닌 창의성, 문제해결력, 전공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교육부, 2019). 이러한 요구는 학생들의 참여와 경험을 증진시키고 창의성과 융복합 역량 개발을 목표로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해외 대학의 사례를 보면 융복합 프로젝트 학습, 무크(mooc)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교육,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 학습, 대학기업연구소 공존 클러스터 조성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로 나타나(IMD, 2022)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이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시대 흐름에 더불어 국내 대학이 안고 있는 더 큰 어려움은 인구절벽에 따른 신입생 부족 현상이다. 2022년 전국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46만 3천 473명(교육부, 2022)이며, 수능 응시자 수는 45만 2천 222명(교육부, 2022)으로 신입생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또한 2015학년도 이후 상승세인 중도탈락 학생 수는 2021학년도 9만7326명(대학알리미, 2022)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들은 대학의 위기를 말해준다. 늘어나는 이탈율은 신입생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단기적 대응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대학교육의 방향과 전반적 교육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내의 어려운 현실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말해준다. 대학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학에서 학생성공을 대학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성공에 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없이, ‘취업’을 학생성공으로 가정하거나, 학생성공센터와 같이 부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성공은 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동안 자신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이나 행정가에게는 성취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의 평가 기준이 충족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은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학생성공(student success)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것 또한 어렵다. 전통적으로 학생성공의 개념은 원하는 학습 결과의 성취 및 성공적 학업 목표 달성이라고 표현된다(Kuh, Kinzie, Buckley, Bridges, & Hayek, 2006). 학생성공의 요소로 대학 과정 이수 및 유지, 학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자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성공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대학원 및 전문학교의 입학시험 점수, 수업 등록 및 완료율과 같은 성취도 역시 학생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특정 분야의 시험 성과 및 자격증 취득이나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소득도 학생성공이 될 수 있다. 국내 대학생들은 학업성취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 쌓기, 원하는 진로 설정과 개발, 만족스러운 취업, 관계 형성 능력 증진, 취업역량 증진,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자기발전 이루기 등 다양한 요인들을 학생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류소형, 탁진국, 2021).

Kentucky Council on Postsecondary Education과 같은 일부 주립 고등 교육 조정 기관은, 고용주들이 근로현장에서 기대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에 압력을 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동력 요구 사항 중 일부는 탐구 지향 학습, 민주적 가치 개발, 문제 해결 능력 배양 등 일반적인 교육 성과와 연계가 되어왔다(Kuh et. al., 2006). 대학생성공에 대한 확장된 정의는 경제적 현실과 노동시장 요구의 영향을 받는다. 변화하는 사회 특성과 지식 기반 경제의 요구로 인해(Carnevale & Desrochers 2003), 대학 교육이 더 이상 21세기의 직장과 대학에서 성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American Diploma Project 2004: Kuh et al., 2006에서 재인용).

이렇게 학생성공의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정될 수 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핵심은 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직업 역량 개발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의미있는 삶과 같은 정신적 풍요에 대한 가치를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성공을 논의할 때, Tinto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Tinto에 따르면 대학의 학업 및 커뮤니티 시스템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부적정인 상호작용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대학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대학을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Tinto(1993)의 학생성공은 학생 통합(student integration)을 이루는 것이다. 학생통합(student integration)은 학업적 통합(academic integration)과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구성된다. 학업적 통합은 지적 성장을 자극하는 학업 경험 및 활동에 대한 학생의 인식으로, 주로 학점 취득과 지적 성장의 두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둔다. Tinto의 모델에서 학점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성공 척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학업적 통합의 척도가 된다. 사회적 통합은 학생이 대학 동기 및 교수진과 사회적 참여를 하는 것으로 교수진, 교직원(수업 안팎)과의 상호작용, 학생모임 및 대학 동료 그룹이나 기숙사 친구와의 접촉, 캠퍼스 활동 참여 또는 학습 환경에서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Tinto는 적절한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학업을 지속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학업적 통합이 사회적 통합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생의 학업성공과 관련한 연구들은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했다. Astin(1999)은 학생의 활동과 대학생활에 대한 참여가 대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학생참여이론(Theory of Student Involvement)은 학생이 대학 교육에 더 많은 신체적·심리적 에너지를 쏟을수록 대학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여율이 높은 학생은 공부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캠퍼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생 활동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직원 및 다른 학생들과 자주 교류하는 학생이다. Astin(1999)은 학생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중요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보다 개인의 행동 측면이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교수자는 학생이 학습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대신 가르치는 방식 등을 개선해 학생참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원하는 학습 및 발달을 가져오기 위해서 학생의 노력과 에너지를 충분한 이끌어내야 한다.

Kuh는 Tyler, Pace, Astin, Tinto, Chickering과 Gamson 등의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학생참여이론(Student Engagement Theory)을 견고히 하였다. Kuh 등(2006)은 학생성공을 학업 성취도, 교육 목적이 있는 활동 참여, 만족도, 원하는 지식, 기술 및 역량 획득, 끈기, 교육 목표 달성 및 대학 졸업 후 성과로 정의하였다. 학생이 학업 과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수록 학습과 경험은 더 가치가 있으며, 대학은 성취목표를 합리적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높은 수준의 학생참여는 의미있는 교수-학생 관계,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학생이 포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성과에 대한 기대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대학 환경 및 광범위한 교육 정책과 관련된다. 즉 학생의 참여에 대한 노력과 학생참여를 장려하는 대학의 노력은 성공적인 교육 결과를 달성한다(Kuh, 2009).

Pace(1984)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하는 모든 경험에 시간을 투자하고, 양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노력의 질이다(Pace, 1982). 즉, 학생이 양질의 노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성공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시한 Bean과 Eaton(2000)은 학생들이 대학 환경 내에서 상호 작용할 때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 긍정적인 대처능력,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등의 심리적 과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학생들은 긍정적

인 결과로 스트레스를 줄인다. 이러한 학생들은 성공적인 학업 및 사회 통합에 대한 관점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캠퍼스 생활을 구성하는 특정 사건 및 상황에 대한 강한 자기 효능감은 학생이 생존 및 적응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상호적이며 반복적인 이 과정은 학생이 졸업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동기를 얻는 토대를 구축한다. 내부 통제 위치를 가진 개인은 적성 또는 기술과 같은 개인의 내부 속성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통제의 위치에 대한 학생의 귀인은 학교 환경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결정한다. 심리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세계에 대한 수정된 관점을 개발하고 효능감이 증가된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처 전략을 얻고, 학업 및 사회적 운명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학문적 통합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학업적 성공을 이루게 된다.

학생성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학업성취도와 졸업 측면에서 학생성공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Schreiner(2010a)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성적과 졸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장(thriving)의 관점을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졸업시점에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졸업한다는 것이다. 성장(thriving)은 고등 교육 환경에서 지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다(Schreiner, 2010a). 긍정심리학의 ‘번성(flourish)’의 개념을 통해 학생성공을 학업성취 이상으로 이해한 Schreiner, McIntosh, Nelson과 Pothoven(2009)은 학생성공을 학업적·개인내적·대인관계적 성장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대학생성공에 관한 이전 연구자들이 놓친 5개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찾았다.

첫 번째 영역인 학업적 성장은 학습 참여와 학업적 결정으로 구성된다. 학습 참여는 성적과 학업 요건 충족 이상을 의미하는데 학습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조절 및 자기 결정 행동을 포함한다. 학업적 결정 요인은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학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과 태도이다. 두 번째 영역인 개인내적 성장은 긍정적인 관점을 포함한다. 긍정적인 관점은 낙관적 시각뿐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긍정적인 관점의 학생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행동한다(Schreiner, 2010b). 세 번째 영역인 대인관계적 성장은 사회적 연결성과 다양한 시민의식으로 구성된다. 성장지향적인 학생들은 건강한 관계와 캠퍼스 내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캠퍼스 안팎에서 사회적 연결성을 형성한다. 다양한 시민의식 요인이 중요한 이유는 성장 지향적인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Schreiner et. al., 2009).

TQ의 구조는 번성(flourishing)에서 의미하는 심리적 웰빙을 기반으로 하지만 학생성공에 중요한 요소인 학업 참여, 자기 조절 학습, 목표 설정, 노력 조절, 차이에 대한 개방성, 시민의식, 대학 내에서의 심리적 공동체 의식 등을 포함해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갖는다.

학생성공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성공의 인식에 관한 탐색연구(류소형, 탁진국, 2021; 배상훈, 조성범, 한송이, 곽은주, 2020)가 이제 시작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학생을 대상

으로 개발된 학생성공 척도는 발견하지 못했다. 학생성공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이루어진 해외 문헌에서도 학생성공을 측정하는 도구는 Thriving Quotient(이하 TQ)만 확인되었다. Schreiner 등(2009)은 개입에 적합하고 학업 성공 및 지속성을 예측하는 대학생의 번성(flourish)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TQ를 개발하였다.

TQ는 5요인으로 구성되며, 학업적 결정(academic determination) 요인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노력을 투자하여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학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과 태도를 담고 있다. 학업 참여(engaged learning) 요인은 자신의 학습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투자하고, 학습과정을 의미 있게 인식하며, 현재의 학습에 집중하는 등 행동적, 심리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관점(positive perspective) 요인은 자신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개발하고 낙관적인 시각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 요인은 건강한 대인관계 구축, 네트워크 형성,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 등을 통해 캠퍼스 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시민의식(diverse citizenship) 요인은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류소형, 탁진국, 2021)에서 도출한 대학생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성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학생의 성공이란 ‘대학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다양한 경험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기르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목표한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생 성공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 대학생 성공을 측정하는 도구가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성공을 설명하는 통합, 참여, 노력, 성장 관점의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성공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류소형과 탁진국(2021)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 성공에 대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 또한 대학과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1. 예비문항 개발

연구 1에서는 대학생 성공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대학생의 성공과 관련된 문헌 분석, 전문가 인터뷰, 대학생의 성공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문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항에 대해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예비 문항으로 사용할 문항을 선정하였다.

방 법

자료수집 및 예비문항 도출 과정

대학생 성공 척도의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 성공과 관련된 이론, Schreiner 등(2009)이 개발한 TQ 척도, 대학생 활적응 및 진로 관련 척도 등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대학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K-NSSE(배상훈, 강민수, 홍지인, 2015)를 검토하였다.

또한 대학생 성공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에서 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7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학생의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대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생 성공이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고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 성공의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해 대학생의 성공 인식 연구를 재분석하였다. 류소형과 탁진국(2021)의 연구에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4년제 학생들의 자료만 재분석하였다.

도출된 요인과 문항은 척도 개발에 경험이 있는 심리학 박사과 전문가 인터뷰에 참여한 교수 및 대학생들에게 타당도를 검증받고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척도 개발 분야 교수 1인의 검토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결 과

대학생 성공 요인 및 문항 도출 과정

문헌검토

학생 성공 관련 이론과 TQ 척도를 통해 대학생 성공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학생 성공을 학업 성취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그 외에 동료, 교수 및 대학 직원들과의 상호작용, 학습과 연계된 활동에서의 참여, 목표에 대한 전념, 동료들과의 협력, 대학 생활에 대한 노력, 자신 및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공 요인을 5개로 가정하고 문헌에서 검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추출, 분류하고, 동일한 개념을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도출된 요인은 ‘학업성취’, ‘대인관계 유능성’, ‘다양한 경험’, ‘자기성장’, ‘진로개발’이었다. 요인별 중심 키워드는 학업성취 31개, 대인관계 유능성 18개, 진로개발 18개, 다양한 경험 13개, 자기성장 24개로 도출되었다. 이후 도출된 중심 키워드를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무능력으로 가정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되어 문헌검토를 통해 도출된 예비문항은 학업성취 40문항, 대인관계 유능성 23문항, 진로개발 17문항, 다양한 경험 14문항, 자기성장 27문항, 직무능력 13문항으로 분류되었다.

대학생 학생성공 인식조사

대학생이 인식하는 성공의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해 대학생성공 인식 조사(류소형, 탁진국, 2021)를 재분석하여 요인과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기존에 연구 결과를 재분석하여 학업성취 6개, 다양한 경험 11개, 대인관계 유능성 9개, 진로개발 11개, 자기성장 30개, 직무능력 8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해 학업성취 11문항, 다양한 경험 25문항, 대인관계 유능성 9문항, 진로개발 18문항, 자기성장 38문항, 직무능력 11문항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인터뷰

대학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수 7인과 1:1 온라인(zoom)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전문가는 인터뷰 당시 4년제 대학의 혁신업무 관련 부서의 본부장, 부처장, 센터장 등을 겸직하고 있는 교수 3인과 연구교수 4인

으로 구성되었다. 부처장 1인은 형사사법학박사이며, 그 외 모두 교육학박사이다. 소속된 대학의 소재지는 서울 4명, 경기도 1명, 강원도 1명, 부산 1명이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구성은 30대 2명, 40대 3명, 50대 2명이며 여자 6명, 남자 1명이다.

인터뷰 내용을 키워드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민의식’으로 명명된 요인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학업성취 7개, 진로개발 12개, 다양한 경험 8개, 자기성장 27개, 직무능력 7개, 시민의식 7개의 키워드가 최종 도출되었다. 분류된 키워드에서 중복된 의미는 제거시키고, 유사 키워드는 통합하여 학업성취 29문항, 대인관계 유능성 9문항, 진로개발 15문항, 다양한 경험 8문항, 자기성장 27문항, 직무능력 13문항, 시민의식 7문항이 개발되었다.

대학생성공 예비문항 도출

문헌검토, 대학생 인식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문항들은 각 요인별로 통합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통합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에 참여했던 교수 중 6인(연구교수 1인은 교수 개인사정으로 제외)에게 내용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안면타당도 검증을 위해 대학생 5명에게 문항의 적절성 및 질문 내용의 이해 등을 확인받았다. 이후 심리측정 분야 저서를 집필하고 다수의 척도개발 논문을 발표한 산업심리학 교수에게 검토를 받았다. 문항제작 과정에서 추가로 도출된 직무능력 요인 문항들은 학업성취 및 진로개발 요인과 상관이 높다고 판단되어 제거되고 최종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학업성취 26문항, 다양한 경험 27문항, 진로개발 25

문항, 대인관계 유능성 24문항, 자기성장 31문항, 시민의식 12문항의 6요인, 145개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 2. 대학생성공 척도 예비조사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된 대학생성공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요인을 분류하고 본 조사에 사용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과정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예비문항을 Likert 6점 척도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일반대학에 다니는 전국 2~4학년 남녀 학생에게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대학생들의 경험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조사는 2022년 3월 28일부터 4일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은 1학년이 대학생활을 경험하기에 부족한 시간 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시간과 역 문항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30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10명(36.5%), 여자 191명(63.5%)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참여 학생의 학년 구성은 2학년 28명(19.3%), 3학년 90명(29.9%), 4학년 153명(50.3%) 이었다. 전공

계열별 구성은 사회계열 73명(24.3%), 공학계열 69명(22.9%), 인문계열 64명(21.3%), 예체능계열 28명(9.3%), 자연계열 26명(8.6%), 의·약계열 25명(8.3%), 교육계열 16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가 속한 대학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 106명(35.2%), 경기도 48명(15.9%), 부산 25명(8.3%), 충청도 17명(5.6%), 전라도 17명(5.6%), 인천 16명(5.3%), 대구와 경상도가 각각 15명씩(5.0%), 강원도 13명(4.3%), 대전 12명(4%), 광주 7명(2.3%), 울산 4명(1.3%), 세종과 제주가 동일하게 3명(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자료분석 과정

대학생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문항들의 적절성과 문항들이 내재된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5.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301개 자료의 145개 문항에 대한 구성개념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실시 전 문항 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의 평균이 극단적 값이 나온다면 응답자들의 학생성공에 대한 성향을 충분히 변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응답자들의 선택이 다양하지 않고 어떤 한 점수에 치중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탁진국, 2007). 따라서 평균이 1.0 미만 또는 5.0 초과인 문항과 표준편차 .5 미만, 1.5 이상의 문항은 제거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에서 전체문항 상관이 .3 미만이거나 .8 초과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요인분석이고, 자료를 축소하는 것과 공통요인을 찾는 것이 핵심이므로 공통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 CFA)을 시행하였으며, 공통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축요인법과 사각회전을 수행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검토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확인하고 요인부하량을 검토하였다. 요인부하량이 클수록 측정 변수와 요인 간 관련성이 높고 작을수록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주일, 2007). 또한 하나의 측정 변수가 여러 요인에 걸쳐 .3 이상의 요인부하량이 나타나거나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을 넘지 않을 경우 교차 부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Costello & Osborne, 2005). 이러한 경우는 측정변수 즉 해당 문항이 요인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인부하량이 낮고 여러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갖는 문항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문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문항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오민아, 강태훈, 2020), 낮은 요인부하량과 중복 요인부하량을 갖는 문항을 우선 제거 대상에 놓고 제거 시 분류된 요인구조 결과 및 문항의 중요도를 판단해 제거를 결정하였다.

결 과

문항분석 및 신뢰도 결과

조사에 사용된 모든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제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모두 사용되

었다. 신뢰도 분석에서 전체문항 상관이 .3미만 .8초과인 문항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145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8이었으며, 항목 제거시 Cronbach's α 는 모든 문항에서 .98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계수 결과 .3미만의 상관을 보이는 문항 4개(.28, .20, .25, .24)를 제거하였다. 제거된 문항이 포함된 요인은 시민의식 2문항, 자기성장 1문항(역문항), 진로개발 1문항(역문항)이었다. 따라서 6요인 141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들이 요인분석 실시에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확인하였다. KMO 지수는 .913으로 1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chi^2 = 34671.205$ $p = .000$)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대학생성공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을 기초로 하였을 때 요인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스크리 도표를 통해 요인수를 가정하였다. 스크리 도표상에서 요인수가 7개인 지점부터 평준화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8개 요인수부터 지정해 분석하였다.

요인수를 지정해 분석 후 패턴행렬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구조행렬을 통해 공통성이 낮은 문항부터 제거하기로 하고, 여러 요인에 걸쳐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을 하나씩 삭제해갔다. 문항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공통성이 다소 낮고, 여러 요인

표 1. 예비조사 결과 도출된 요인에 대한 정의와 문항 수 및 신뢰도

요인	정의	문항 수	신뢰도
주도적 학업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 적극적으로 학습함	10	.91
자기성장	나를 발전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함	9	.90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 동기 및 선후배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8	.87
진로 효능감	진로목표를 정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고 이루어감	8	.85
시민의식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함	6	.82
진로활동 참여	대학 내외의 진로개발 활동에 참여함	7	.86

에 상관이 있는 경우라도 일단 삭제는 보류하고 요인구조를 확인하면서 삭제 여부를 결정하였다. 요인수 8개, 7개, 6개, 5개, 4개로 지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6요인의 48문항이 추출되었다. 설명된 총 분산은 56.08% 이고 .30 수준의 공통성을 보인 세 문항(.31, .39, .38)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45부터 .71까지로 나타났다. 48문항 전체 신뢰도는 .96이며, 각 요인별 정의와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학업성취’로 개발되었으나, 추출된 문항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학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 ‘주도적 학업’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진로발달’로 개발되었으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자신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진로 효능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다양한 경험’으로 개발되었으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로활동 참여’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자기성장’, 요인 3의 ‘대인관계 유능성’, 요인 5의 ‘시민의식’은 문항 개발 당시 예상했던 요인의 개념이 확인되어 문항 개발 당시의 요인

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 3. 대학생성공 척도 본조사

연구 3에서는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대학생 성공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검사의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성장지수(Thriving Quotient) 척도의 능동적 학업 참여, 학업적 자기결정, 사회적 연결성 요인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학업성취, 대학적응, 진로미결정, 주관적행복감과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학교생활의 핵심적인 측면은 학업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는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된다. 국내 대학생의 인식 조사에서도 학업성취는 학생성공의 가장 큰 의미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전 학기 평점평균(성적)을 측정하여 준거관련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둘째, 정은이와 박용한(2009)은 대학생활적응의 구성요인 중 하나인 개인 심리에 대해,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하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 개념에는 도전정신, 자기효능감, 노력, 끈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적응(개인심리)을 준거관련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대학생활과 학업을 통해 이루어야 할 주요 과업 중 하나는 진로를 선택하고 실현해 가는 것이다(Haase, Heckhausen & Silbereisen, 2012). 또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학생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Tinto, 1993). 따라서 진로미결정 수준을 측정하여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최근 학생성공의 심리적 요인을 찾는 연구는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Krumrei, Newton, Kim, Wilcox, 2013).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가며, 가치 있는 활동에 몰두하면서 사회적 지지체제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의 성장과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킨다(Lent & Brown, 2008).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주관적 행복감을 준거관련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국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2~4학년 학생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여한 학생은 남자 256명(42%), 여자 353명(58%)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 구성은 2학년 131명(21.5%), 3학년 173명(28.4%), 4학년 305명(50.1%) 이었다. 전공계열별로 공학계열 164명(26.9%), 사회계열 158명(25.9%), 인문계열 106명(17.4%), 자연계열 74명(12.2%), 교육계열 43명(7.1%), 의·약계열 34명(5.6%), 예체능계열 30명(4.9%) 이었다. 참여자가 속한 대학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 198명(32.5%), 경기도 117명(19.2%)으로 서울·경기 지역이 50%를 조금 넘게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경상도 52명(8.5%), 부산 43명(7.1%), 충청도 43명(7.1%), 전라도 30명(4.9%), 강원도 27명(4.4%), 대구 24명(3.9%), 대전 23명(3.8%), 인천 17명(2.8%), 광주 15명(2.5%), 세종 9명(1.5%), 제주도 8명(1.3%), 울산 3명(0.5%) 순이다.

측정도구

예비척도

대학생성공 척도는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6개 요인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생활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Likert 6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6: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성장지수(Thriving Quotient)

Schreiner 등(2009)의 성장지수(Thriving Quotient)를 홍은선, 조성범, 조문석(2021)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척도에서 4개 요인(능동적 학습참여 6문항, 학업적 자기결정 6문항, 사회적 연결성 3문항, 공동체적 시민의식 3문항)을 사용하였다. TQ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모습과의 부합 정도를 Likert 6점(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6: 전적으로 동의한다)으로 평정하도록 하였

다. 본 연구에서 능동적 학습참여, 학업적 자기결정, 사회적 연결성, 공동체적 시민의식의 내적일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9, .89, .92, .72이며 세 요인의 전체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성적

대학생의 성적을 알아보기 위해 본조사의 인구통계변인 문항에 자신의 이전학기 평점 평균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학점은 모두 6개의 구간(1: 2.0미만, 2: 2.0이상 ~ 2.5미만, 3: 2.5이상 ~ 3.0미만, 4: 3.0이상 ~ 3.5미만, 5: 3.5이상 ~ 4.0미만, 6: 4.0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적응

정은이와 박용한(2009)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에서 개인심리 요인(4문항)을 사용하여 Likert 5점(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

본 연구에서는 Tak과 Lee(2003)가 개발한 진로미결정척도의 직업정보 부족(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4문항)의 2개 요인에 대해 Likert 식 5점(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의 내적일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2와 .96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삶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

에서는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SHS: 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Seligman(2006)이 수정한 것을 김인자(2006)가 번안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7점(1: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 7: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s α 는 0.44로 나타났다. 역문항으로 표현된 4번 문항 '일반적으로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우울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는 않다. 이 특징은 당신에게 얼마나 해당됩니까?'의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0.91로 올라가 4번 문항을 제거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과정

예비조사를 통해 개발된 대학생성공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요인분석 결과의 교차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609명의 자료에 번호를 부여한 후 홀수 그룹(G1, N=305)과 짝수 그룹(G2, N=304)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의 T-test를 실시해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G1은 SPSS 25.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G2는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로 교차타당도를 검증한 대학생성공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구성개념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대학생성공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48문항에 대해 사각회전(직접오블리민)의 주축요인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도출된 6요인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G1(표집인원의 홀수 집단)에 대해 7요인, 6요인, 5요인으로 지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상적인 결과는 6요인 26개 문항과 5요인의 25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5요인의 경우 각 요인별 문항이 5개씩 골고루 분포되어 요인과 문항이 균형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5요인의 결과는 6요인의 시민의식을 제외한 요인과 동일한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분석 결과에 대한 결정을 위해 6요인과 5요인을 구성하는 문항과 문항 개발 시 수집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였다. 5요인에서 제거된 시민의식은 졸업 이후 본격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되어 6요인 26문항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본 조사결과 도출된 2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1은 ‘삶의 목표 설정’으로 명명하였으며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의 문항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알고,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며 꿈을 실현시킬 자신감을 담고 있다. “나는 내 삶의 명확한 목표가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92이다.

요인 2는 ‘진로개발’로 명명되었으며,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문항개발 당시 “다양한 경험”으로 가정했던 요인이다. 그러나 최종 분석 결과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서의 참여로 구

체화 되었다. “나는 대학이나 사회에서 진행하는 공모전, 경진대회에 참여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79이다.

요인 3의 5문항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학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도적 학업’으로 명명하였다. “나는 비록 재미없는 수업이라고 해도 배울 것을 찾아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84이다.

요인 4는 대학에 들어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그 속에서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 증진’으로 명명했으며,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만하게 잘 해결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83이다.

요인 5는 ‘성숙한 시민의식’ 3문항으로 전문가 인터뷰에서 추가된 요인이다. “나는 대학 내 또는 대학 밖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문항의 요인별 부하량은 요인 2에 .709, 요인 5에 -.448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항은 분석결과에 따라 요인 2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예비조사 시 높은 부하량(.67)으로 시민의식에 포함되었었다. 또한 문항 개발 시 타인을 돕는 삶에 대한 노력이라는 의미로 시민의식을 가정하고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 문항을 요인 5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인 5의 Cronbach’s α 계수는 .73이다.

요인 6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목표를 만들고 노력해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기성장’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 본 조사에서 도출된 대학생성공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305)

문 항	요 인					
	1	2	3	4	5	6
내가 원하는 진로를 결정했다.	.88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안다.	.88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80					
나는 내 삶의 명확한 목표가 있다.	.84					
나는 대학생활을 통해 내가 정한 꿈을 실현시킬 자신이 있다.	.77					
나는 대학 밖에서 진행되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한다.		.73				
나는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75				
나는 대학이나 사회에서 진행되는 공모전, 경진대회에 참여한다.		.69				
나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인턴, 관심분야 아르바이트 등)에 참여한다.		.58				
나는 비록 재미없는 수업이라고 해도 배울 것을 찾아낸다.						-.67
나는 대학에서 하는 공부가 즐겁다.						-.75
나에게 수업 시간은 정해진 일과가 아니라 내가 발전하는 시간이다.						-.70
나는 학교 수업을 통해 내 진로를 선택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75
나는 대학 수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길러진다.						-.69
나는 대학에 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다.					.77	
나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70	
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만하게 잘 해결한다.					.74	
나는 대학 동기와 및 선후배와 정보를 교류한다.					.63	
나는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나를 성찰하는 기회를 얻는다.					.65	
나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80
나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삶에 대해 생각한다.						-.76
나는 대학 내 또는 대학 밖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70				-.45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73
나는 나에게 부족한 점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69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60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63
고유값	10.13	1.62	1.35	1.05	0.92	0.65
설명변량	38.97	6.22	5.19	4.04	3.52	2.51
누적변량	38.97	45.20	50.38	54.43	57.95	60.46
내적일치 신뢰도	.92	.79	.84	.83	.73	.81

표 3. 본 조사 결과 도출된 요인에 대한 정의와 문항 수

요인	정의	문항 수
삶의 목표 설정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며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짐	5
진로개발	자신의 진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서 진로를 개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함	4
주도적 학업	재미없는 수업에서도 배울 점과 즐거움을 발견하며, 학습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감	5
대인관계 증진	대학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대인 관계 능력과 자기 성찰을 이룸	5
성숙한 시민의식	이타적 삶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함	3
자기성장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관리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최선을 다함	4

“나는 나에게 부족한 점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81이다. 본 조사 결과 추출된 6개 요인의 정의 및 문항 수는 표 3과 같다.

구성개념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G1(표집의 홀수 집단)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G2(표집의 짝수 집단)의 48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G2 데이터는 AMOS 21.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성공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 요인에 대한 모형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를 확인하였다. $\chi^2 = 605.724(df = 274, p < .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chi^2/df(=CMIN/df) = 2.211$ 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RMSEA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Browne & Cudeck, 1993)을 의미하는데 .07로 나타났다. TLI는 .9보다 클 경우 좋은 적합도(Bentler, 1990)로 볼 수 있는데 .9로 확인되었다. CFI는 .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92를 나타냈다. SRMR은 .08 이하를 좋은 적합(Hu & Bentler, 1999)으로 보며 .06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척도의 6개 요인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된 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별 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표 4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산출된 대학생성공 척도의 전체 잠재요인과 대상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출된 6개 하위요인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표 4. 대학생성공 척도의 요인 부하량

	문항	요인 부하량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삶의 목표 설정	목표1	.91	.74 ^{***}
	목표2	.98	.78 ^{***}
	목표3	1.04	.89 ^{***}
	목표4	.91	.78 ^{***}
	목표5	1.00	.87 ^{***}
주도적 학업	학업1	1.21	.69 ^{***}
	학업2	1.57	.81 ^{***}
	학업3	1.21	.71 ^{***}
	학업4	1.41	.79 ^{***}
	학업5	1.00	.59 ^{***}
대인관계 증진	대인1	.97	.64 ^{***}
	대인2	.66	.62 ^{***}
	대인3	.96	.72 ^{***}
	대인4	1.09	.83 ^{***}
	대인5	1.00	.66 ^{***}
진로개발	진로1	1.16	.78 ^{***}
	진로2	1.00	.68 ^{***}
	진로3	.95	.61 ^{***}
	진로4	1.00	.65 ^{***}
성숙한 시민의식	시민1	.80	.62 ^{***}
	시민2	.76	.62 ^{***}
	시민3	1.00	.72 ^{***}
자기성장	자기1	1.13	.76 ^{***}
	자기2	1.25	.74 ^{***}
	자기3	1.17	.62 ^{***}
	자기4	1.00	.69 ^{***}

* $p < .05$, ** $p < .01$, *** $p < .001$

수렴타당도

본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실제 대학생의

성공을 측정하는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chreiner 등(2009)이 개발한 TQ를 홍은선 등 (2021)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표 5. 대학생성공 척도와 성장지수와 요인 간 상관

	성장지수	능동적 학습 참여	학업적 자기결정	사회적 연결성	공동체적 시민의식
대학생성공 척도	.86**	.73**	.73**	.53**	.73**
삶의 목표 설정	.65**	.51**	.56**	.48**	.47**
진로개발	.58**	.49**	.44**	.30**	.62**
주도적 학업	.70**	.78**	.67**	.29**	.52**
대인관계 증진	.76**	.50**	.55**	.69**	.58**
성숙한 시민의식	.59**	.51**	.41**	.30**	.64**
자기성장	.75**	.62**	.80**	.43**	.55**

주) * $p < .05$, ** $p < .01$, *** $p < .001$

성장지수 척도와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장지수와 대학생성공 척도의 하위 요인들 간 상관관계수는 표 5에서와 같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준거관련타당도

본 연구의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적응(개인 심리), 진로 미결정(직업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주관적 행복감, 성적(이전학기 평점 평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대학생성공 척도의 하위 요인들과 준거 관련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 성공은 심리적 대학적응, 진로 결정, 주관적 행복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과 대학생성공은 높지 않은 유의미한 정적

표 6. 대학생성공 척도와 대학적응, 진로 미결정, 주관적 행복감, 성적 간 상관

	대학적응 (개인심리)	진로미결정 (직업정보 부족)	진로미결정 (자기 명확성 부족)	주관적 행복감	성적
대학생 성공	.76**	-.52**	-.63**	.57**	.28**
삶의 목표 설정	.73**	-.63**	-.80**	.58**	.22**
진로개발	.45**	-.25**	-.30**	.32**	.14**
주도적 학업	.59**	-.39**	-.50**	.45**	.34**
대인관계 증진	.59**	-.46**	-.46**	.52**	.20**
성숙한 시민의식	.44**	-.24**	-.32**	.32**	.15**
자기성장	.75**	-.41**	-.52**	.48**	.27**

주) * $p < .05$, ** $p < .01$, *** $p < .001$

상관이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성공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대학생의 학생성공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류소형, 탁진국, 2021)를 바탕으로 대학생성공 요인을 5가지로 가정하고 문헌, 전문가 인터뷰, 대학생 인식조사를 통해 문항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인터뷰과정에서 요인이 추가되었으며,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거쳐 6요인의 145개 예비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조사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전국 4년제 대학의 2~4학년을 대상으로 3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6요인의 48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요인과 문항수는 주도적 학업 10문항, 자기성장 9문항, 대인관계 유능성 8문항, 진로 효능감 8문항, 시민의식 6문항, 진로활동 참여 7문항이다. 예비문항 개발 시 가정했던 요인이 모두 도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도출된 6개 요인 48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2~4학년 학생 609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시행하여 신뢰도, 구성개념 타당도, 수렴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요인의 26문항이 추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장지수(Thriving Quotient)와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여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적응(개인 심리), 진로 미결정(직업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주관적 행복감, 성적(평점 평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요인과 문항수는 ‘삶의 목표 설정’ 5문항, ‘진로개발’ 4문항, ‘주도적 학업’ 5문항, ‘대인관계 증진’ 5문항, ‘성숙한 시민의식’ 3문항, ‘자기성장’ 4문항이다.

최종 도출된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 1은 문항 개발 당시 진로개발로 개발되었으나 최종 분석 결과 우리 삶 전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삶의 목표 설정’으로 명명하였다. 대학 시절은 사회인으로서 본격적인 준비 기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시절이 직업을 목표로 한 진로설정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삶의 목표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요인 2는 문항개발 당시 경험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특정 짓기 어려워 다양한 경험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최종 조사결과 진로활동과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어 ‘진로개발’로 명명하였다.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 경험으로 아르바이트(21.8%)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중앙일보, 2019).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다(Atkins & Ebdon, 2014).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진로활동 경험을 통한 흥미와 적성을 찾는 것은 성공적인 직업인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 3은 ‘주도적 학업’으로 학업성취로 개발되었던 요인이다. 학업성취는 대학생의 성공 및 성취를 가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Pritchard & Wilson, 2003; Tinto, 1993). 학업성취가 좋은 직업을 예측해 주기는 하지만 성공적인 미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학업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적과 학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상이다(Arnold, 1993; Schreiner, 2010b). 본 연구결과에서 학습은 능동적 사고 능력 함양, 지적 참여 및 동기 부여, 다양한 학업 능력 개발(Gurin, Dey, Hurtado & Gurin, 2002)로 본다는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요인 4는 ‘대인관계 증진’이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사회적 유대감, 자기성장, 주관적 안녕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이수진, 2009; 정은이, 2011) 중요한 요인이다. Tinto(1993)는 학생성공에서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Robert, Kassel과 Gotlib(1995)은 대학생 시기에 대인관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쌓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 기간은 학생들에게 환경적인 변화가 큰 시기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는 것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요인 5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본 요인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서 도출되었다. 성장 지향적인 학생들은 타인을 돕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한다(Schreiner et al., 2009). 많은 선진국의 교육과정에서 시민의식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대학생성공의 중요한 요인임을 뒷받침한다.

요인 6은 ‘자기성장’ 요인이다. Bean과 Metzner(1985)는 자기 통제력과 성숙한 가치를 개발한 학생들은 사회화 또는 통합에 덜 취약

하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에 대한 내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학업적,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학생성공은 복잡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포함한다(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또한 학업적으로 성공적인 학생은 학습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Schreiner & Louis, 2006), 자기 조절 및 자기 결정 행동을 보인다(Schreiner, McIntosh, Nelson & Pothoven, 2009). 따라서 자기성장 요인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Thriving Quotient(TQ)와의 수렴타당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TQ의 5개 요인 중 4개 요인과 상관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TQ의 ‘긍정적 인식’ 요인은 본 연구의 문항개발 시 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척도의 주도적 학업과 대인관계 증진 요인에 긍정적 인식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본 척도의 ‘진로개발’ 요인은 TQ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이다. 진로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졸업 후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대학 진학은 주로 성적에 의해 좌우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교 4학년 1831명으로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48.6%가 어떤 일을 할지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중앙일보, 2019). 또한 대졸자의 첫 일자리 적응의 어려운 점으로 업무 내용 습득(38.1%), 적성/흥미의 불일치(7.2%) 등이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2019).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직업

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TQ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삶의 목표 설정’은 진로를 포함해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성공을 논할 때 단기적 관점으로 대학생활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은 학업성취를 학생성공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는 대학생 성공을 학생 자신이 개발 중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 본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목표를 설정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행이 증진된다. 그 이유는 목표가 단순한 공상이나 소망과는 다르게 몰입 수준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Edward & Melissa, 2019).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대학기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찾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 원하는 삶에 대한 고민, 이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척도와 TQ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생성공 척도가 국내 대학생들에게 활용하기 적절할 것이다.

준거관련변인으로 대학적응(개인 심리), 진로 미결정(직업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주관적 행복감은 대학생성공과 높은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성적(평점 평균)과 대학생성공은 높지 않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성적이 학생성공과 높지 않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예상과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많은 연구에서 학생성공은 학업성취 즉, 성적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성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 과

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많은 대학에서 상대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정 기준을 넘기면 학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Pass 또는 Fail)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학점 걱정 없이 다양한 전공 강의를 접하게 하자는 융합교육의 일환으로 P/NP방식의 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한경, 2017). 연세대학교 의대의 경우 H(Honor, 최상위 수준)와 P(Pass)·통과 못함(Non Pass, NP)의 방식을 4년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성취도는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 간 과도한 경쟁이 사라지고 연구나 봉사 등의 자발적 활동이 늘어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교수들의 강의도 플립러닝(flipped learning)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되었다(중앙일보, 2018).

본 연구에서 학습이란 수업에서 배울 점과 즐거움을 발견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성적과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결과는 대학생 성공이 성적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대학생의 학생성공에 대한 개념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학생성공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성공이라는 단어의 주관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성공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학생성공에 관한 해외 연구에서도 성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학생성공으로 가정하고 연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학생성공에 관한 개념은 심리적 관점 등을 포함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학생성공을 명확히 개념화 한 연구들은 Kuh 등(2006)의 연구 외에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내의 학생

성공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학생 성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학생성공에 대한 문헌과 대학생의 인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대학생의 학생성공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였다.

둘째, 학생성공과 관련된 여러 이론을 기반으로 대학생성공의 요인구조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생성공 척도는 학생 통합이론, 학생참여이론, 노력의 질 이론, 심리학적 모델, 성장이론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학생성공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론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개발되었다.

셋째,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대학생성공 척도이다. 현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성공 척도는 Schreiner 등(2009)이 개발한 TQ를 국내 대학생에게 타당화 한 성장지수(홍은선 등 2021)만 확인되었다. 본 척도는 TQ에서 포함하지 않은 ‘삶의 목표 설정’과 ‘진로개발’ 요인이 추가되었다. 국내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들의 인식조사에서도 두 요인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의 인식이 반영된 대학생성공 척도로 이는 선도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국내 대학생성공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척도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 대학에서 학생성공을 대학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생성공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수립과 실천 과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대학생성공 연구에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코칭이나 상담 프로그램 및 효과성 검증에 활용이 가능하다. 대상자의 요구를 채워주는 개입은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척도의 6개 요인은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에 대한 조사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의 요인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입 전 본 척도를 활용한 측정 결과를 통해 코칭 및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 후 대상자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성공을 돕는 프로그램 및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성공에 대한 근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척도의 각 요인들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및 취창업 등의 프로그램 주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검사 도구를 통해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공 수준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활의 목표설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립된 목표의 실천 과정을 중간 점검 해 봄으로써 동기부여 및 실천 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측정 결과를 통해 성공의 각 영역별 수준을 개인 내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에게 부족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성공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반대학 학생과 전문대학 학생의 성공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척도를 모든 종류의 대학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공은 주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학교 종류별, 학과 계열별로 성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척도는 대학생의 일반적인 성공을 개념화하고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모든 계열의 학생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를 활용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성공 척도의 명확한 요인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절차상 두 번의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다수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학생 성공의 요소를 포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척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지역, 성별, 학년 분포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성별은 여학생에, 학년은 4학년에 지표가 편중되어 있다. 또한 학과 계열도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를 활용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에 대한 비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학생성공 요인을 결과로 한 예측 변인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생성공을 돕는 데 다양한 활용이 될 것이다.

여섯째,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활용되기 위

해 기준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검사를 받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 수준이 전체 대학생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써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9).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 교육부 (2022). <https://if-blog.tistory.com/>에서 2022. 11. 28. 자료 얻음.
- 교육부 (2022). <https://www.moe.go.kr/search/front/Search.jsp>에서 2022. 11. 28. 자료 얻음.
- 대학알리미 (2022). <https://www.academyinfo.go.kr/uipnh/unt/unmcom/RdViewer.do>에서 2022. 12. 19. 자료 얻음.
- 류소형, 탁진국 (2021).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 CQR-M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5(1), 33-65.
- 배상훈, 강민수, 홍지인 (2015). 한국 대학생의 학습참여 진단을 위한 미국 NSSE 모델 도입 및 타당화. 아시아교육연구, 16(4).
- 배상훈, 조성범, 한송이, 곽은주 (2020).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학생 인식. 열린교육연구, 28, 319-346.
- 오민아, 강태훈 (2020).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중복부하 문항 활용을 위한 통계적 방법 탐색. 교육평가연구, 33(3), 603-627.
- 이수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29-248.

- 이주일 (2007). SPSS를 활용한 심리연구 분석 제2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은이 (2011). 대학생들을 위한 자기 성장 및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 상담의 효과 분석. *교육방법연구*, 23(4), 687-712.
- 정은이, 박용한 (2009).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69-92.
- 중앙일보 2018. 06. 25. “연세대 의대 절대평가 4년...학점 없애니 ‘협공’ 살아 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40261#home>.
- 중앙일보 2019. 08. 16. “4년제 대학생 절반 아직 무슨 일 할 지 모르겠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53794>.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통계청 (2022).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index/index.do?mb=N>에서 2022. 11. 30. 자료 얻음.
- 한국경제신문 뉴스레빗 2017.01.04. “학점 걱정 말고 다전공 마음껏 들으세요”. <http://news.labit.bankyung.com/article/2017010353071>.
- 홍은선, 조성범, 조문석 (2021). 한국 대학생 학생성공 측정도구 타당화: 서울 소재 4년제 H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2(1), 91-118.
- Arnold, K. D. (1993). *Academic achievement: a view from the top*. The Illinois Valedictorian Project. Oak Brook, IL: North Central Regional Education Laboratory.
- Astin, A. (1999).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0(5), 518-529.
- Atkins, M., & Ebdon, L. (2014). *National strategy for access and student success in higher education*. London: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99689/bis-14-516-national-strategy-for-access-and-student-success.pdf에서 2020.04 .01 자료 얻음.
- Bean, J. P., & Eaton, S. B. (2000). A psychological mode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working the Student Departure Puzzle*, 1, 48-61.
- Bean, J. P., & Metzner, B. S. (1985). A conceptual model of nontraditional undergraduate student attri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5(4), 485-540.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A Bollen & J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 Carnevale, A. P., and Desrochers, D. M. (2003). Preparing students for the knowledge economy: what school counselors need to know.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6(4): 228-236.
- Costello, A. B., & Osborne, J.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0(1), 7.
- Edward B., & Melissa B. (2019). **동기과학** (신현정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17에 출판).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 Gurin, P., Dey, E., Hurtado, S., & Gurin, G. (2002). D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heory and impact on educational outcom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72*(3), 330-367.
- Haase, C. M., Heckhausen, J., & Silbereisen, R. K. (2012). The interplay of occupational motivation and well-being during the transition from university to 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48*(6), 173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MD (2022). <https://www.imd.org/centers/wcc/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competitiveness-ranking/>에서 2023.03.25. 자료 얻음.
- Krumrei-Mancuso, E. J., Newton, F. B., Kim, E., & Wilcox, D. (2013). Psychosocial factors predicting first-year college student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4*(3), 247-266.
- Kuh, G. D. (2009). The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s. *New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search, 2009*(141), 5-20.
- Kuh, G. D., Kinzie, J. L., Buckley, J. A., Bridges, B. K., & Hayek, J. C. (2006). What matters to student succ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rome-extension://efaidnbnmnibpcjpcglclefindmkaj/viewer.html?pdfurl=https%3A%2F%2Fnces.ed.gov%2Fnpec%2Fpdf%2Fkuh_team_report.pdf&chunk=true에서 2020.09.15 자료 얻음.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Pace, C. R. (1982). Achievement and the Quality of Student Effort.
- Pace, C. R. (1984). *Measuring the quality of college student experience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Los Angeles.
- Pritchard, M. E., & Wilson, G. S. (2003). Using emotional and social factors to predict student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1), 18-28.
- Roberts, J. E., Kassel, J. D., & Gotlib, I. H. (1995). Level and stability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2), 217-224.
- Schreiner, L. A. (2010a). "The Thriving Quotient" A new vision for student success. *About Campus, 15*(2), 2-10.
- Schreiner, L. A. (2010b). Thriving in the classroom. *About Campus, 15*(3), 2-10.
- Schreiner, L. A., & Louis, M. (2006, 11). *Measuring engaged learning in college students: beyond the borders of nsse*. In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Anaheim, CA.
- Schreiner, L. A., McIntosh, E. J., Nelson, D., & Pothoven, S. (2009). *The thriving quotient: advancing the assessment of student success*. In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Vancouver, British Columbia.

- Seligman, M. E. (2006). 긍정심리학 [Authentic happiness]. (김인자 역). 안양: 물푸레. (원전은 2002에 출판).
- Tak, J.,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2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원 고 접 수 일 : 2023. 01. 30.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4. 10.
최종게재결정일 : 2023. 04. 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udent-Success Scale

SoHyeong Ryu

Korea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JinKook Tak

Kwangwoon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verify the validity of a university student success scale. To develop the scale, first, preliminary questions were developed after conducting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success, a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terviews. Accordingly, 145 items for 6 factors were developed. Second,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301 college students to analyze the preliminary questions' factors.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48 items for all 6 factors were selected. Third, the cross-validation of the extracted items was verified and the construc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were verified by conducting a survey on 609 college students. Thriving Quotient analysis, which is a growth index,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items' convergent validity. To verify the items' validity,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respondents' GPA from the preceding semester, career decisions,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the degree to which they had adapted to college life. As a result of the final analysis, 26 questions were selected for all 6 factors. The finally derived factors and questions were 'Setting a life goal (5 questions)', 'Career development (4 questions)', 'Initiative study (5 questions)',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5 questions)', 'Mature citizenship (3 questions)' and 'Self-growth (4 questions)'. The student success scale and thriving quoti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orrelated. Criterion-related validity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dicating the scale's validity. This paper discusses this study'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how th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other student success instruments, it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student success, student success scale, college student success factor, factor analysis, validation